

그
때

박 영 인

작은애야

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

아버지다

놀라 문을 여니

검은 비닐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

어여 들어가라 소리치시며

바빠 계단을 내려가신다

화요일이구나

아버지 사시는 아파트에 장이 서는 날

감자떡임에 틀림없다

베란다로 뛰어가 방충망을 연다

어느새 별이 하얗게 부서지는

버스 정류장 야윈 나무 밑에 서 계신다

나도

한번쯤은

아버지 등뒤에 서 있는 앞 무성한

나무이고싶다